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가시화... 미래 발전 전환점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5급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철학 핵심으로 꼽았고, 최근에는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이에 따른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을 비롯한 산업활성화 시책 등 국무총리가 발표한 4대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통합지자체 지역발전엔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대전·충남, 대구·경북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통합까지는 가장 앞선 상황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28일 김영록 지사의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50여일간 특별법안 준비, 도의회 의견 청취, 시민 의견 수렴 등 통합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했다. 공청회·간담회 등 공식 의견수렴도 50여 차례가 넘는다. 짧은 기간임에도 정부의 지원과 시민의 압도적 성원이 있어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남도는 이번 행정통합을 유구한 한반도 역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전남·광주가 산업화 시대에 잠시 뒤쳐진 지역발전을 한번에 뒤집을 황금갈

연 최대 5조원 재정지원·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성장 기반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산업재편 가속 청년 취업... 27개 시군구 상생 발전하는 균형 성장 기대

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단순한 전남·광주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 미래 설계도의 핵심은 산업이다. 산업 재편을 통해 전남·광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배치와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3축 클러스터 조성'이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의 최우선 요건인 물과 전기가 풍부하고 부지가 저렴하다. 수도권 등에 비해 전남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3축 클러스터는 광주권, 동부권, 서부권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권은 인재와 연구개발(R&D)의 거점이자 반도체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가 되고, 서부권은 전기와 물이 넘치는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동부권은 피지컬AI 생태계와 반도체 펌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대기업 지방투자계획 300조 원의 절반인 150조 원과, 반도체·이

차전자·로봇·수소 등 신산업 투자 300조 원을 추가 유치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조선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 항공우주산업, 석유화학·철강산업 고부가화 등 다양한 산업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권역별 산업 재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가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역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도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교육·문화·청년지원책 등 기존 양시·도에서 시행 중인 주민 혜택사업도 통합 이후 시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재정 인센티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시군구의 재정 기반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7



개 시군구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손해보지 않고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물길을 전남·광주로 돌

려, 청년이 고향에서 꿈을 갖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희망의 땅, 황금의 땅을 물려주겠다"며 "전남과 광주가 하나 돼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이달 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역사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완성된다. /염선호 기자

전라남도가 나로우주센터 기반을 발사 인프라와 국가산업단지, 민간기업 집적, 시험·사업화 체계까지 갖춰가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케이(K)-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출발점이자 국내 유일의 발사 인프라로, 전남은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국가 우주 발사 역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고흥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되고, 2024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면서 전남은 발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으로 도약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페리비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우주 관련 앵커기업이 입주 협약을 하며, 발사체 제조와 핵심 부품 산업이 집적되는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반복 발사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며 민간 중심 우주산업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4년부터 민간발사장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발사·시험·인증·사업화가 연계된 산업 기반을 구축 중이다.

또한 2026년 신규사업으로 500억 규모의 민간 전용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과 100억 원 규모의 우주

## 전남도, 민간 주도 케이-스페이스 시대 연다

### 민간 전용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초소형 위성 '전남셋' 추진

### 인프라 기반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

항공기업 기술자립 연계형 지역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발사체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70억 규모의 초소형 위성 '전남셋'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사체 중심에서 위성 활용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우주산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단순한 발사 성공을 넘어, 발사-제작-시험-사업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발사체 조립 시설, 추적·운용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앵커기업과 중소·스타트업 기업을 연계 지원하는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발사체 기업은 장거리 이송 부담 없이 설계·제작·시험·발사를 모두 전남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전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실증·사업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시험·검증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가산단 중심으로 한 민간 발사체 기업의 기술 실증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 우주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남의 우주 전략은 산업을 넘어 교육·체험·문화로 확장할 계획이다. 나로우주센터 일원에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모델로 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조성해 우주과학 교육과 체험, 전시가 결합한 국민 참여형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발사 현장과 연계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통해 우주기술을 산업·관광·교육으로 연결하는 케이-스페이스(K-Space) 상징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업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7년 국고 신규사업으로 '지·산·학·연 연합캠퍼



스 구축사업'을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구축 중인 우주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추가 발사 수요에 대응할 제2우주센터와, 정책·연구·산업을 아우르는 우주산업 전담기관 유치를 통해 전남을 발사 중심지로 넘어 국가 우주산업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기흥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은 대한민

국 우주산업이 출발한 곳이자,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케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중심지"라며 "그 동안 축적된 발사 성과와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 2막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 발사, 산업, 연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주 생태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수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